금융위원회	보 도 반 박			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금융감독원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'21.9.22.(수)	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담 당 자	김 경 문 사무관 (02-2100-2824) 김 나 혜 사무관 (02-2100-2836)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(02-3145-8020)		김 형 원 팀장 (02-3145-8040)

제 목 : 금융당국은 증권사 신용공여를 DSR에 편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1. 기사 내용

□ 한국경제는 9.22일자 "은행·카드·보험 이어 증권사까지... 2030 '주식' 빚투 막는다" 제하의 기사에서

○ "금융당국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에 편입, 한도를 제한하는 등 규제 강화를 검토중이다."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□ 금융당국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를 DSR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